

대한체육회 노조 “이기흥 회장 연임 반대”

“무보수 명예직에 걸맞는 인사 새 주장 되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노동조합(노조)이 ‘무보수 명예직’에 걸맞는 인사의 회장 당선을 바라는 한편 현행 체육회장 선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체육회 노조는 지난달 중순 이 회장의 불출마 선언을 촉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과도한 개입을 지적하는 ‘대한민국 체육의 봄은 올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이 회장 3선 도전에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히 성명서 발표에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에도 나섰다. 이 회장의 연임 자격을 심의한 4월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위원회, 12일 전체 회의 때 회의장을 찾아 시위를 벌였다.

체육회 노조가 현 회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적극 행동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성하 노조위원장은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현 회장의 리더십에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 회장의 방만한 조직 운영과 부적절한 인사 등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 회장 체제에서는 더 이상 조직의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노조원들이 뜻을 같이 했다”고 최근 행보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이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한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과 박민호 노조 부위원장은 체육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걸

성명서 발표 시작으로 시위 등 적극 행동 나서  
“주먹구구식 운영” 비판… “선거 제도 개선 필요”

맞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사가 차기 주장이 되길 바랐다. 아울러 현행 체육회장 선거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비전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이 회장, 개인 영달만 추구” 이 회장의 각종 비위 행위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이 발표한 체육회 조사 결과에 의해 날날이 드러났다.

점검단은 이 회장 등 관리자 8명을 직원 부정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남비(배임) 등 혐의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 회장은 체육회장으로서 체육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다음 행보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에 집중했다. 몇 년 동안 이 회장이 체육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데 직원들이 무척 피로감을 느꼈다”며 “확실한 비전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임정민 정책국장은 “단순히 이 회장의 갑질이나 과로함이 방아쇠가 돼서 노조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게

된 것이 아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올바르게 않은 지침을 내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강요하면서 예산을 탕진하는 일이 계속 쌓여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 회장의 방만한 운영의 최근 사례로 평창 동계훈련센터, 장흥 교육센터 등 지방 사업장 확대를 꼽았다.

“불통”도 불만을 키운 요소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사실 직원이 회장과 대화할 기회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다. 논란이 된 2024 파리 올림픽 참관단도 내부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지만,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참모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사실 폭두각시에 불과하다. 자신의 눈 밖에 난 사람은 절대 승진시키지 않으면서 조직을 장악했다”고 덧붙였다.

▲“차기 회장 ‘무보수 명예직’에 걸맞아야…선거 제도 개선도 필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3선 연임을 승인하며 길을 터준 상황이다. 이 회장은 3선 도전을 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임에 반대하며 시위를 펼치는 대한체육회 노동조합. (사진=대한체육회 노동조합 제공)

해 공정위에 연임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도 3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회장이 점검단의 수사 의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여론까지 악화돼 3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수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청장이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이 회장의 3선에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낸 체육회 노조가 바라는 차기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에 걸맞는 인

물이다. 박 부위원장은 “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주는 분이 차기 회장이 되길 바란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체육계 발전을 위한 방향을 고심하고, 정부와의 조율과 스포츠 외교에 힘써주시는 분이 신임 회장이 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국가의 국가를 리픽위원회(NOC) 위원장 같은 경우 대부분 무보수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발터티어(volunteer·봉사자)’라고 표현한다”며 “한국 체육계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지니신 분이 차기 회장이 되셨으면 하는 것이 노조의

바람”이라고 말을 보탰다. 체육회 노조 측은 현행 체육회장 선거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육회장은 체육회 대의원, 회원 종목 단체, 17개 시도 체육회, 228개 시군구 체육회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2000여명의 선거인단을 꾸려 실시한다.

예초 선거인단은 100% 무작위 방식으로 뽑았는데, 2022년 말 체육회 정관에 ‘직접선거인’ 제도가 신설됐다.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선거인단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선거인단 규모를 고려하면 10% 규모다.

이 회장이 기존 체육회 조직을 차기 회장 선거에서 활용하기 위해 규정을 손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직접선거인 제도는 기존 회장이 임기 중에 어느 정도 표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현행 선거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정치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사실 체육회가 지정선거인 제도를 신설할 때 이를 승인해준 문화체육관광부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선거인단 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현 회장이 특정 선거인단을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시스

시즌 II

#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박안나편

Gt. 이상욱

가수 지혜

Cb. 정효준

Dr. 정명준

해 설·최지영 기 획·이문정

2024. 11. 29(금) 7:30pm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티켓: 전석 22,000원  
 예약: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II" 검색  
 문의: 카카오톡 "문화공간이룸" ☎ 063. 223. 5323

주최·주관: 문화공간이룸  
 후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주매일신문  
 후원: 문화공간이룸

본 공연은 (사)전북특별자치도문화재단 2024년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 무주 탁구협 '해피핑클럽' 성료

무주군 탁구협회(회장 이주원)는 무주군 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및 비다문화가정 20명을 대상으로 7월 17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무주군민탁구장(무주읍 최북로 38)에서 15회기에 걸쳐 '해피핑클럽'을 진행했다.

해피핑클럽의 목적은 다문화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탁구 기초 교육과 함께 스포츠 예절을 함께 배우는 것이다.

한편, 무주군 탁구협회는 2012년부터 3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무주=전문성 기자

---

## 타이슨, 31세 연하에 판정패

### 19년 만에 복귀... 제이크 폴과 美 프로복싱 헤비급 경기서 패배

19년 만에 링에 오른 '전설' 마이크 타이슨(58)이 유투버 제이크 폴(27·미국)에게 패배했다. 타이슨은 지난 16일(한국시각)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AT&T 필드에서 열린 폴과의 프로복싱 헤비급 경기에서 0-3(72-80 73-79 73-79)으로 판정패했다.

지난 2005년을 끝으로 은퇴한 타이슨은 이날 19년 만의 복귀전을 가지면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이날 경기는 세계 최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독점 중계를 맡고, 타이슨과 폴은 각각 2000만 달러(약 279억원), 4000만 달러(약 558억원)의 대진료를 받으면서 기대감을 배가했다. 그러나 치열한 경기를 바라며 경기장을 채운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는 등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현역 시절 '해머'로 가장 강한 사나이라는 별명은 세월을 끝내 이기지 못했다.

리운드당 3분씩 12라운드로 소화하는 일반 경기와 달리, 이날 경기는 타이슨을 배려해 2분 8라운드 체제로 열렸다. 특별 규정에도 타이슨은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1라운드 직후에는 펀치를 몇 차례 날렸으나, 3라운드부터는 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31살이나 어린 폴 역시 타이슨을 크게 위협하지 못했다. 이날 패배로 50승 6패였던 타이슨의 역대 전적은 50승 7패가 됐다. 타이슨은 경기 후 패배에도 "행복하다"며 웃었다. 또 싸우겠다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경기 종료 전 공격을 멈추고 타이슨에게 인사를 하는 등 경의를 표하기도 했던 폴은 "그와 함께 경기에 영광"이라고 소감을 남겼다. /뉴시스

---

## 대한노인회 순창지회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순창군이 지난 15일 제2회 순창군지회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순창군 공설운동장 축구장에서 열렸으며, 선수단과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대회를 뜨겁게 달궜다. 그라운드골프는 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생활체육이다. 특히 고가의 장비나 넓은 경기장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적고, 규칙 또한 단순해 노인들이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어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그라운드골프대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해 올해 두 번째 열리는 행사로, 순창군 내 총 14개 클럽팀이 참가해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누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순창=이양원 기자